

고요함의 미학: ‘침묵’ 과 ‘홀로 있음’ 의 기독교적인 의미

소속: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아동복지학전공 양혜영

I. 문제 인식 및 ‘침묵’ 과 ‘홀로 있음’ 의 기독교적인 의미 탐색의 필요성

“자취를 2년 동안 하면서 학교가 끝나고 돌아오면 항상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데요, 어떤 날은 너무나도 우울하고.. 외로움이 커져서 견디지 못하고 생각들이 많아지니 안 좋은 생각도 하게 되면서 극단적인 생각까지 한 것 같아요. 조용한 것이 싫어서 핸드폰을 만지거나, 게임을 하거나, TV는 항상 틀어 놓아요.. 혼자 있으면, 무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위의 내용은 본 연구자가 상담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여대생과의 대화 중의 일부분이다. 이 학생 외에도 다른 학생들과 상담이나 대화를 하거나, 관찰을 해보면, 많은 대학생들이 홀로 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아래의 답변처럼 보내고 있었으며, 조용히 홀로 있는 것과 고요함과 침묵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

“혼자 있을 때, 핸드폰 게임을 하거나 노래를 듣는다. 왜냐하면 늘 그렇게 해왔고, 게임을 하고 노래를 듣는 것이 시간을 보내기에 좋기 때문이다.”

“조용한 상태가 싫어서, 무조건 라디오나 TV를 틀어놓고 핸드폰을 하거나 컴퓨터를 한다.”

“혼자 있는 시간에 텔레비전을 보거나 인터넷을 하거나 카톡이나 전화를 하기도 하고...”

“고요히 시간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위와 같이 답변한 기독교인 대학생들의 홀로 있음과 침묵의 부정적인 견해들을 고려해 볼 때, 침묵과 홀로 있음의 의미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재개념화 하는 과정이 필요시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 진다.

본 논고는 기독교신앙을 가진 대학생들의 ‘침묵’과 ‘홀로 있음’에 대한 인식과 실태를 탐색적 연구¹⁾를 통하여 살펴 보고,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침묵’과 ‘홀로 있음’에 대한 개념도 고찰 해보고자 한다. 또한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제시하는 ‘침묵’과 ‘홀로 있음’의 의미도 살펴 보고자 한다. 이러한 탐색의 결과들이 기독교 대학교육 기관에서 대학생 지도와 상담, 교육 시에 활용될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와 더불어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근거한 ‘침묵’과 ‘홀로 있음’의 긍정적인 의미의 필요성도 논의함으로써, ‘침묵’과 ‘홀로 있음’으로 인한 고요함의 아름다움에 대한 재고를 위해 참고 자료로서 본 소고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1) 탐구 현상에 대하여 선행연구와 사전 지식이 없는 경우에 활용하며, 향후에 연구문제들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연구에 대한 사전지식과 경험을 얻기 위해 소규모 표본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다(실행연구방법, 이용숙외, 2005).

연구내용 결과의 일부는 세 차례의 반구조화된 조사지를 통하여 연구결과를 수집하였다. 먼저 두 차례의 반구조화된 조사지를 통하여, 아래의 다섯 가지 내용들을 조사하였다. 이후에, ‘홀로 있음’을 보여주는 네 장의 명화를 감상한 후, 침묵과 홀로 있음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미술 감상 에세이’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전체 연구대상자 43명 중에서 기독교 신앙이 있다고 응답한 32명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였다.

1. ‘침묵’과 ‘홀로 있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2. ‘홀로 있음’에 대한 본인의 경험 및 생각을 기술해주세요.
3. ‘침묵’과 ‘홀로 있음’에 대해 배워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4. ‘침묵’(고요함), ‘홀로 있음’에 대해 배우고 싶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5. ‘홀로 있음’을 보여주는 네 장의 명화를 감상한 후, ‘침묵’과 ‘홀로 있음’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기술해주세요.

II. ‘침묵’ 과 ‘홀로 있음’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응답 결과와 ‘침묵’ 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 탐색

연구대상자들은 ‘침묵’과 ‘홀로 있음’에 대한 단어를 들으면 다음과 같은 생각이 떠오른다고 하였다.

“침묵은 갑갑하고, 답답하다. 왜냐하면 침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뭔가 강제적인 상황에서 쓰일 법한 단어인 것 같다.”

“제일 먼저 드는 느낌은 부정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누군가 강요해서 침묵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들기 때문이다.”

“경건하면서 조심스러운 느낌이 든다. 항상 국민의례시의 모습이 떠오른다.”

“일단 고요한 분위기가 생각이 난다. 굳은 결심이나 굳은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의 이미지가 생각나고, 어떠한 흔들림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모습 또는 이미지가 생각난다. 침묵이라는 단어 자체에서 묵직함과 강한 힘이 느껴지기도 한다.”

“고민이 있을 때 생각에 잠기느라 침묵하기 때문에 ‘고민’이 떠오른다. 내가 원해서가 아닐 때, 억지로 침묵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답답함’이 떠오른다. 말로 표현하기 벅차고 힘든 순간에 잠시 침묵할 때가 떠오른다.”

“고요함. 그 누구도 자신의 소리를 내지 않는 고요함이 침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용함, 대화의 단절이라는 생각이 든다. 편안할 수도 있지만 불편하기도 한 단어라고 생각한다.”

“어색함. 할 말이 없는 경우에 자주 나타나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침묵이 있는 자리에 내가 있었던 경험이 떠올랐고 중요한 자리에 예의를 갖추고 떠들지 않고 조용한 분위기가 생각이 난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 그냥 조용한 침묵이 떠오른다.”

“강제적, 안정적, 고요함. 왜냐하면 침묵을 강제적으로 할 때도 있고 스스로 침묵하여 심리적 안정을 느낄 때도 있기 때문이다.”

“침묵은 나를 무시한다. 왜냐하면 내가 질문이나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침묵을 하면 나를 무시했다는 생각이 든다.”

연구 대상자들은 ‘홀로 있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혼자 어떤 일을 해본 적이 많이 없어서, 혼자 있으면 어떤 것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고, 혼자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두려움도 가지고 있다.”

“외로움, 그 단어 밖에 생각이 안 난다. 자취를 하면서 혼자 있고 말을 안 하게 되는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졌다. 그럴 때 마다 외로워서 부모님께 전화를 하거나 친구들에게 연락을 한다. 홀로 있음의 어려운 점은 너무나도 큰 외로움인 것 같다.”

“홀로 있음은 더 깊이 우울하고 슬퍼져서, 어렵다고 생각한다.”

“홀로 있음을 경험하는 기회도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러다 보니 그러한 경험을 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거나 외로움을 느끼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홀로 있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홀로 있음을 타인이 부정적인 시선으로 볼까 두려워 홀로 있음이 어려운 것 같다.”

“홀로 있을 경우, 내가 잘 한 것 보다 못한 것이 더 생각나고 미래를 생각하다 보면 내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몰라서 답답해져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홀로 있음은 ‘쓸쓸함’인 것 같다. 침묵하거나 홀로 있다 보면 참 외로워지고, 사랑받거나 사랑하고 싶어지는 것 같다.”

“홀로 있음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외롭기도 하고, 재미없고, 사람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오랜 시간을 버티기 힘들 것 같다.”

연구대상자들이 진술한 침묵에 대한 일상적인 용법은 대부분은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침묵에는 말을 하지 않는 것 외에도, 아무 소리가 나지 않은 상태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홀로 있음’에 대해서는 주로 외롭거나 쓸쓸한 느낌을 표현하였고,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침묵’과 ‘홀로 있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우세하였다.

‘침묵’과 ‘홀로 있음’의 상태를 부정적으로 대하게 되는 것은 ‘침묵’과 ‘홀로 있음’의 긍정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부족이나, 긍정적인 측면을 깊이 고려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침묵’과 ‘홀로 있음’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과 함께 긍정적인 측면의 개념에 대한 탐색을 시도하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본 고에서는 먼저, 침묵의 어원을 한 번 살펴 보기로 한다. 조지 프로호니크(2010)에 따르면, 영어단어 ‘Silence (침묵)’의 어원 중 하나는, ‘바람이 잦아든다’는 고트어족의 동사에서 유래하였다고 하며, 또 하나는 ‘멈추다’라는 라틴어에서 나왔다고 한다(안기순역, p.16, 2010). 즉, 침묵은 ‘무언가 멈춤의 상황, 무언가가 잦아드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어쩌면 ‘침묵’은 넘치게 범람하는 말과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의 흐름과는 역행하여 ‘멈추고자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국어 사전(표준국어대사전, 2001)에 명시되어 있는 침묵(沈黙)의 사전적 정의에도(아래 4가지 정의 참조) 멈춤의 상태도 명시되어 있다.

- ① 말없이 잠잠히 있음
- ② 비밀을 지키는 상태
- ③ 정적(靜寂)이 흐르는 상태
- ④ 멈춤의 상태

침묵의 발생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사람간의 담화를 분석한 정혜경(1999, (장영희, 재인용, p.158, 2012)은 침묵의 유형을 아래와 같이 분류하였다.

- ① 긍정적 표현으로서의 종류 : 동조, 동감, 찬성, 이해, 긍정 등
- ② 부정적 표현으로서의 종류 : 불만, 반대, 거부, 부정 등
- ③ 무관심표현으로서의 종류 : 무관심, 무시, 멸시, 거리감, 벽, 흥미·관심 없음 등
- ④ 무지각적 표현으로서의 종류 : 상대방 이야기를 듣지 못함, 다른 생각을 함 등
- ⑤ 성격적 표현으로서의 종류 : 과묵, 표현미숙, 표현하기 싫음, 비밀스런 성격 등
- ⑥ 몰이해적 표현으로서의 종류 : 상대방 이야기의 내용이나 상황에 대해 잘 모름, 이해 못함, 아는 바 지식이 없는 잘 모르는 분야
- ⑦ 신체적 · 상황적 미대처로서의 종류 : 놀라움, 당혹, 의외, 망설임 등으로 흥분, 말이 막힘, 말이 안 나옴, 말을 할 수 없음
- ⑧ 배려적 표현으로서의 종류 :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는 당혹감을 주거나 놀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행하는 침묵

장영희(2012)는 “침묵은 복잡 미묘한 인간의 심리나 정서 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해석이 무척 어렵다. 더구나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더욱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침묵은 언어적 행위와 달리 명시적이지도 않고, 침묵 그 자체가 말없음이기에 몸짓 언어 등과도 달라 정확한 의미 파악이 쉽지 않을 수 있다(p.159).”고 했다.

한편, 침묵을 언어보다 앞선 독립적인 실재로서, 하나님의 언어라고 본 학자도 있다. 막스 피카르트는 침묵의 언어를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보았으며, 이러한 침묵은 유형이면서 무형이고, 뜻이 없지만 뜻이 있다고 했다(서동은, 2012) 즉, 말과 말 사이의 침묵이 아니라, 침묵 자체가 원초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며, 언어는 원초적으로 존재한 침묵에서 나와야 한다고 했다. 이승우(2000)도, 막스 피카르트는 “침묵을 단순히 소리 없는 상태로 인식하지 않고, 침묵을 하나의 독자적인 현상으로, 그 자체로 존립하는 어떤 것으로, 모든 것에 존재하며 그 자체이기도 하며, 능동적인 것이고 독자적이며 완전한 세계로” (p. 99) 보았다고 했다. 이미 1940년대 말에 피카르트는 본인이 설명하는 침묵의 실체를 가지지 못한 인간은 매 순간마다 그 앞에 제공되는 지나치게 많은 소음과 물질적인 것들에 속박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었다.

본 고에서는 ‘침묵’과 ‘홀로 있음’의 의미와 정의를 하나로 통합하기는 어렵지만, 연구 대상자들이 답변한 침묵에 대한 견해와 앞에서 살펴 본 침묵의 사전적 정의 및 유형, 그리고 막스 피카르트의 침묵에 대한 독특한 견해들을 종합한 후, 본 연구자의 생각을 덧붙여서 아래 <표 1> 에서처럼 여섯 가지의 침묵의 종류를 제안하고자 한다.

대상의 상태	침묵의 종류	결과
<u>사람과 사람 사이의 침묵</u> ① 대화의 단절 혹은 무관심이나 대화 거절로 인한 침묵 혹은 강요된 침묵 ② 아무 말도 없지만 편안한 침묵	대화 혹은 관계성 부재로 인한 침묵 대화는 없지만, 사람사이를 부드럽게 하는 침묵	불편한 침묵, 외롭게 만드는 침묵 편안한, 휴식과 같은 침묵
<u>나와 나 사이의 침묵</u> ③ 홀로 있음으로 인한 자연적인 침묵이나 외로움의 침묵 ④ 홀로 있음으로 인한 자연적인 침묵	외롭고 쓸쓸해져서 피해버리고 싶은 침묵 자기 존재와 함께하는 침묵	외부의 소음과 외부의 대상으로 채우려는 침묵 고요한 침묵
<u>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의 침묵</u>		

⑤ 기다림의 침묵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침묵	쉽지 않은 침묵이나,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침묵
⑥ 회복의 힘을 지닌 침묵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안 세상은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로 주시는 침묵	영원히 벗어나고 싶지 않은 침묵

< 표 1 > 침묵의 종류 및 결과

본고에서는 침묵을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언어적 한계점이나 정지의 상태를 포함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침묵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제안한다. 인간중심적인 사고에서의 침묵에 대한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찰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침묵을 부가하였다. 침묵은 하나님의 언어를 읽어내는 방법이며, 동시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을 위한 기다림’으로 보고자 한다.

III. 예술 안에 표현된 ‘홀로 있는’ 이미지를 통한 ‘홀로 있음’에 대한 탐색

먼저 연구 대상자들이 경험한 ‘홀로 있음’의 경험에 대한 기술은 다음과 같다.

“같이 지내는 친구들이 없는 조용한 자취방에서의 홀로 있는 것은, 조용하고 한적했다. 항상 시끄러웠던 공간이 조용해져서 외롭고 쓸쓸한 느낌을 받았다. 혼자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일들을 한참 생각한 후에 찾아서 하게 되었다.”

“지금 홀로 있음을 경험하는 중이다. 늘 함께 다니던 친구가 휴학을 하고 수업을 혼자 듣는데, 여럿이서 떠들고 장난치고 같이 의견을 나누고 얘기하는 다른 친구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다. 집을 오가는 길에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혼자 걷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는데, 수업을 혼자 듣고 밥을 같이 먹을 친구가 없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다.”

“지난주 금요일에 혼자 자취방에 있으면서 외로움을 제대로 느꼈다. 무기력해지며 혼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고 누가 나를 안아주면서 ‘괜찮아’하며 다독여주는 위로를 받고 싶었다. 그리고 아무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랜만에 혼자 울면서 나 스스로를 위로했다. 위로는 누군가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혼자 있으면서 스스로를 위로도 해보고 아주 조금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 외로움이라는 걸 배운 느낌이다.”

“나는 혼자 북카페에 가서 음악을 들으며 책 읽는 것을 즐겨한다. 북카페에 홀로 있음으로써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몸에 긴장이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홀로 있을 때 느끼는 혼자만의 생각들과 과도처럼 밀려오는 불안과 두려움, 걱정 등에 대해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 예전에는 극복하는 법을 몰라 책을 사서 읽곤 했는데, 이제는 불안감과 염려가 찾아올 때 그냥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일까”

“생각해보면 ‘홀로 있다’라는 느낌이 가끔씩 외롭거나,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막상 생각해 보면, 나 홀로 있었던 적이 별로 없다. 방에 홀로 있다고 해도 밖에는 가족이 있고, 부모님과 오빠가 일 나가시면 그때는 집에 혼자 핸드폰이나 TV를 보고 지내서 별로 혼자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 근데 가끔씩 할 일이 많거나, 고민이 있는 상황에서 집에 홀로 있을 때는 너무 외롭다.”

“원래 혼자 있는 걸 싫어하고, 혼자 버스를 탄다든가 밥을 먹는 것도 싫어한다. 그래서 항상 자고 일어나면 집에 누군가 있나 확인하고 가족이 있으면 다시 편안하게 잘 수 있고 없다면 일어나서 TV를 켜놓는다. 외롭고 내가 작아지는 느낌이 든다.”

“혼자 많은 생각을 하며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도를 통해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평안함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 기도를 하면서 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보았다. 내가 이렇게 느끼는 외로움을 다른 사람도 나 때문에 느끼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혼자 외로워하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위로가 되어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나는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 동안 나를 생각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연구 대상자들의 응답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홀로 있는 경우는 주로, 혼자서의 자신의 방에 있거나, 학교에 다니면서도 혼자 지내거나, 혼자서 카페에서 책을 읽거나 소수의 경우 혼자있는 시간에 기도를 하면서 보냈다는 경험을 언급하였다. 응답자들 중에는 ‘침묵’과 ‘홀로 있음’을 의미에 대해서 처음으로 생각해본다고 한 응답이 있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다고도 했다.

“침묵, 홀로 있음이 나에게 있어 사실은 부정적 의미를 가진 단어들로 다가오는데 침묵과 홀로 있음의 긍정적 의미도 알아보고 싶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침묵과 홀로 있음이 무엇 무엇이 있을지도 궁금하다.”

“침묵 속에서, 홀로 있을 때에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배우고 싶다,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 배우고 싶다.”

“먼저 침묵 속에서 자신과의 대화하는 것을 배우고 싶고, 그 전에 침묵의 시작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그리고, 시끄러운 곳에서도 침묵이 되는지 등에 대해서도 배우고 싶다.”

“침묵과 홀로 있음을 어떤 식으로 경험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것을 통해 얻는 것과 이겨내는 방법, 그리고 침묵과 홀로 있음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면 배우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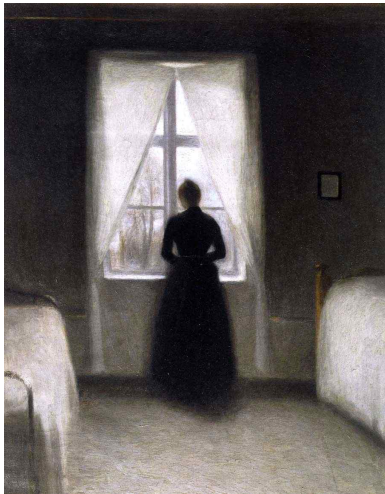
“침묵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즐길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 나는 침묵을 내가 원해서 했던

적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언젠가 한번쯤은 내가 주도해서 침묵하여 생각을 정리해보고 싶다. 또한 홀로 있을 때에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

연구 대상자들이 ‘홀로 있음’의 경험을 더욱 구체화하여 성찰을 할 수 있도록, 네 점의 미술작품을 제시하여 본인들의 ‘홀로 있음’과 ‘침묵’의 경험을 재개념화 하는 기회를 가져보았다. 이후, 미술작품을 통해 본인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홀로 있음’과 ‘침묵’에 대한 견해를 기술하였다.

네 점의 미술작품 중, 그 첫 번째는, ‘자기만의 방에 홀로 있음’이며, 두 번째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의 홀로 있음’ 그리고 세 번째는, ‘자연 앞에서의 홀로 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만의 시간을 갖기 위한 홀로 있음’을 보여 주는 미술작품들이다.

1. 자기만의 방에 ‘홀로 있음’



빌헬름 함페르쉬, ‘침실’ 1890. 캔버스에 유채. 73.X 58cm 개인 소장품

자기만의 방에 홀로 있는 여인의 뒷모습은 고요함과 함께 무엇인가를 사색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연구대상자들은 위의 그림을 감상 한 후, 본인들의 ‘홀로 있음’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성찰하였다.

“나에게는 침묵, 고독, 홀로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는 강제로 홀로 있는 시간을 보내기만 해왔지 나의 주도 하에 홀로 있어본 적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나는 침묵, 고독, 홀로 있는 시간들이 부정적이라고 생각해왔는데 이런 것들과 관계된 미술 작품을 보고 나니 조금은 생각이 변한 것 같다.”

“친구들과 있는 시간들을 너무 좋아해서, 또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질 때에도 TV나 핸드폰 등 이렇게 시간을 활용했지 다른 혼자만의 시간을 잘 가져보지 못했었던 것 같다. 홀로 있음은 나에게 중요한 역할일 것 같다. 혼자만의 생각이 많지만 그것들을 생각해보기엔 나는 너무 혼자 있는 시간

이 짧았던 것 같다.”

“혼자 있는 시간에 좋아하는 노래를 듣거나 드라마, 영화를 볼 때가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틀어 놓고 잡생각 하기를 즐겼다. 그런데 완전한 침묵 속에 혼자 있는 시간도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분산되는 잡생각 보다 나의 내면에 집중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솔직히 지금까지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은 단지 생각을 정리하고 싶거나, 새로운 마음을 갖고 싶어서였는데... 홀로 있을 수 있다는 자체가 나 자신을 강하게 하고 힘을 기를 수 있는 꼭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이 마음 속 깊이 와 닿았다. 그래서 오늘 당장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마음도 들었고, 뭔가 ‘홀로 있음’과 ‘침묵’이라는 단어가 소중한 느낌과 마음 속 깊은 곳이 뜨거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나에게 진정한 의미의 홀로 있음이나 침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는 않지만 핸드폰을 수시로 만지기 때문에 (티비를 보거나) 진정한 의미의 혼자 있는 시간을 활용을 못하는 것 같다. 나는 침묵을 통해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알고 싶고, 때때로 나만의 침묵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고, 이제는 침묵이 무엇인지 조금 더 알고 싶다.”

2. 일상적인 삶 속에서의 ‘홀로 있음’



아서 헤커 '간혀 버린 봄' 1911. 캔버스에 유채. 92 X 71.5cm

이 작품의 소녀의 얼굴에서는 고요함이 느껴지는 듯하고, 담담히 햇살 가득한 창밖을 바라보는 관조하는 듯 한 눈동자가 시선을 붙든다. 식탁을 치우다가 잠시 멈춘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도 일상의 한 가운데에서 저 소녀처럼 때때로 홀로 있는 경우가 있다. 그 장소가 어디이든 일상가운데 홀로 있게 되는

경우의 그림을 보고서, 조사대상자들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서술하였다.

“혼자 창가에서 밖을 바라보는 여인의 모습이 담긴 작품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외롭고 슬퍼 보이기도 하지만 저 창가에는, 창가 밖에는 어떤 모습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 다니며 신나게 노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그것을 보고 그 여인의 표정은 평안한 모습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도 한번쯤 홀로 창가를 내려다보고 나의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타인에 의해서 억지로 혼자가 되는 시간은 너무 힘든 것 같다. 하지만 상황적으로, 자발적으로 내가 홀로 있어야 할 때 오히려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나를 존중해주며, 나에게 결핍되어 있는 부분을 채워주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외롭지만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간 같다.”

“그림을 보고 내가 혼자 있을 때 힘든 마음을 치유 받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나만 외롭고 쓸쓸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고독과 외로움이 존재한다고 생각이 들었다. 또한 그림을 보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혼자 있는 시간에 마냥 외로워하고 힘들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가며 나를 사랑하게 되는 시간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응답자들은 홀로 있음의 시간을 외롭지만, 아름다울 수 있는 시간,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3. 자연 앞에서의 ‘홀로 있음’



바닷가의 수도사,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 1809년 캔버스에 유채 110 * 172cm, 베를린 국립미술관

그림의 수도시는 말없이 밤바다 앞에서 엄청난 자연의 숭고한 아름다움 앞에 ‘홀로 있음’으로 평화를 느끼고 있는 것일까? 무한한 공간으로 보이는 밤의 바다의 침묵은 열려 있는 침묵이다. ‘홀로 있음’의 신비함이 가져다 주는 부드러운 평화를 이 그림을 감상한 응답자들은 느껴 보고 싶어 했다. 연구 대상자들은 이 그림을 감상한 후 자연 앞에서의 ‘홀로 있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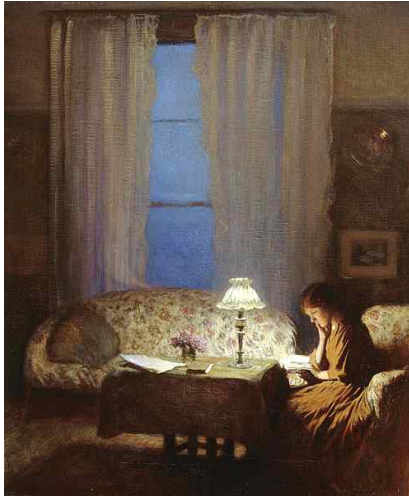
“혼자 서서 바라보는 밤바다의 그림이 너무 아름다웠다. 이 아름다운 침묵 속에서 느끼는 나의 감정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신날 것 같다.”

“‘침묵’은 때에 따라 아름다울 수도 있고 무서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 그림에서의 밤바다는 정말로 아름다웠다. 밤이라 마냥 캄캄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파도가 부서지며 내는 빛, 하늘에 있는 구름들, 백사장 등의 여러 색이 모여 온전히 그림 속의 밤바다에만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나는 이 그림들을 보고 앞으로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나에게 대한 모든 것들을 글로 적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밤바다에 홀로 서있는 사람처럼 저도 홀로 밤바다를 바라보며 내 자신을 돌아보고 싶다. 앞으로 혼자 있을 때 미디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돌아보며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홀로 있을 때에 그 상황이 외롭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시간을 계발해서 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 졌다.”

“학교생활 하라 알바하라 혼자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도 않았었고, 혼자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해도 외로워서 그 시간을 피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혼자 있는 시간에 핸드폰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혼자서 바닷가 같은데서 생각하는 시간도 좀 가져보고 싶다. 여유롭게 독서도 하고 싶고,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도 가져보고 싶다. 살아가는데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을 되돌아보기 위해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 한 것 같다. 아직은 혼자 있는게 익숙하지도 않고, 괜히 혼자서 다니는 것이 부끄럽다고도 느껴지는데 앞으로는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고 싶다. 홀로 있는 그림들 보고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줄어들게 된 것 같다.”

4. 자기만의 시간을 갖기 위한 ‘홀로 있음’



조지 클라우센 '등불 옆에서의 독서' 1909. 캔버스에 유채. 73.2 X 58.4cm 리즈 갤러리

첫 번째 반구조화된 조사지에서 침묵과 홀로 있음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침묵’과 ‘홀로 있음’에 관련된 몇 장의 명화를 감상한 후, 잠깐의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침묵’과 ‘홀로 있음’에 대한 본인들의 견해에 앞에서 기술한 내용들과 같은 변화된 부분들을 보여 주었다.

“그림에서 본 것처럼 한 여인이 새벽 독서에 빠져 날이 밝아올 직전까지 독서하는 그림을 보고 나도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무언가’는 무엇이고, 그 무언가에 전념하여 해보고 싶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알아봐야 하고 나를 알아보고 되돌아보기 위해서는 결국 홀로 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책을 햇빛이 잘 들고 날씨도 좋고 바람도 선선하게 부는 날 조용히 책을 집중해서 읽어보고 싶다. 그리고 카페에 앉아 다이어리에 내 계획을 적고 하나씩 완료해서 알찬 하루를 보내고 싶다. 혼자 조용히 책을 읽는 여자의 그림을 보고나니, 그동안 나는 나만의 시간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외로운 시간을 소중한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번 주 혼자 있는 시간에 나의 할 일을 찾아 ‘넓은 공간에 작은 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의 삶에 가득 찬 나’로 바꿔보고 싶다.”

“그림들을 통해 보니까 홀로 있음과 침묵을 한 눈에 알 수 있었다. 침묵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그 침묵들을 잘 이용하게 되면 스스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앞으로 침묵과 혼자 있는것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잘 이용하여 자기 계발이나 그 침묵의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새벽에 창가 앞에서 작은 등을 켜놓고 책을 읽는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아름다운 침묵이라고 생각했다. 선선한 바람과 시원한 공기와 함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는 책은 밤늦게 까지 핸드폰과 함께하는 침묵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다. 긍정적인 침묵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처음에는 침묵과 홀로 있음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았는데 그림을 보고나니 침묵과 홀로 있음으로 인해 휴식을 가질 수 있고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 또한 내 인생에 있어 한결을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혼자 있는 시간들을 지나간 것을 돌아보며 반성을 하고, 그 속에서 칭찬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오늘 감상한 4 개의 미술작품에서는 모두 혼자 있는 상황의 그림이었음에도 그 사람의 감정이 다 다르게 느껴졌다. 슬픔·외로움·기다림 같은 힘든 감정, 안락함·평온함·여유로움 같은 편안한 감정. 이러한 감정의 차이는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다. 주변 모든 것들에서 해방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을 때 홀로 있음을 즐겁게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IV. ‘침묵’ 과 ‘홀로 있음’ 의 기독교적인 의미 탐색

본 연구에 응답한 조사 대상자들의 대부분은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반구조화된 조사연구에서는 ‘침묵’과 ‘홀로 있음’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술작품들을 감상한 후에는 조금은 부정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홀로 있음’의 시간을 통하여 찾고자 하는 것이 ‘자기인식’에 대한 것이었다. 자기인식은 자신이 진정으로 어떤 사람인지 발견하려는 것이다. 갈수록 세상과 타아에 도취되어가는 상황에서 자아에 대한 성찰을 위해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자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그러나, 조금 더 나아가서 본 연구자는 ‘침묵’과 ‘홀로 있음’의 시간을 통하여, 자기 인식, 그 이상을 넘어서서, 자기 스스로 자기외면과 내면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으면 한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진정한 자기인식일 것이다. 침묵 속에 홀로 있음을 통하여 자신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달았으면 한다.

본 고에서는 ‘침묵’과 ‘홀로 있음’의 본래의 의미와 의의를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되찾아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초기 기독교 영성에서는 침묵과 자기절제를 통한 하나님과 만남을 강조하였다. 실제로 초기 기독교 교부들은 사막과 광야에서 고요함 속에서 ‘침묵’과 ‘홀로 있음’을 수도한 사례가 많다. 기독교 전통에는 ‘침묵’과 ‘홀로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참 기쁨이 찾아 올 수 있으며, 침묵하고 홀로 있는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왔었다(안네마리 키더, 2007). 이 후정(2014)도 침묵하고 고요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거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속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였다.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관해 가르치시면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곳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셨다. 여기서 골방이라는 말은 단지 보이는 방을 가리키는데 그치지 않고 내면의 세계를 뜻하며, 실제로는 지하에 있어 잘 찾을 수 없는 감추어진 방을 말했다고 한다. 한 초대교부는 이 골방이 가장 깊은 내면을 말하는 것으로서 은밀하고 고요하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침묵의 장소라고 하였다. 완전한 고요 속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찾아 살펴보는 분께 기도하는 것이다.. 영혼을 돌아보고 잘 보살피는 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바를 신중하게 살펴보는 성찰은 삶 전체에 걸쳐 자신을 삼가게 만든다. 그러한 영성의 삶으로부터만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고 영성의 스승들은 가르쳤다. 이와 같은 삼감과 자기제어를 위해서는 안정이 중요하다. 침묵 속에 마음의 골방에 찾아들면,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 속에서 안정을 회복할 수 있다 (이후정, 2014, p. 229) .

연구대상자였던 기독교인 대학생들 대부분이 ‘침묵’ 과 ‘홀로 있음’ 에 대하여 진지하게 객관화하여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고 답변하였다. 그 뿐만이 아니라, 홀로 있는 시간을 소음과 잡음으로 채워버리려는 행동으로 침묵의 시간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하지만, ‘침묵’ 과 ‘홀로 있음’을 보여주는 그림들을 보면서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고, 다시 생각하는 시간들을 통하여 ‘침묵’ 과 ‘홀로 있음’의 의미를 재해석하게 되었다. 본 연구자는 이에 더 나아가서 향후에는 기독교적인 의미에서의 ‘침묵’ 과 ‘홀로 있음’의 의미도 연구대상자였던 기독교인 대학생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다.

V. 나가는 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타인에게 말로 표현할 수는 있지만, 타인이 정확하게 나의 생각과 의도를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서로의 불이해로 인한 실망으로 인간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는다. 언어를 통한 상처와 단절이 너무 깊어서 입을 다물어 버리고, 스마트폰에만 몰두하거나 가상세계에 몰입하여 더욱 혼자가 되어 외로워하는 사람들, 혹은 어쩔 수 없이 홀로 있게 되는 상황에서도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세상으로 자신의 영혼을 매몰시켜 버리는 사람들에게 ‘침묵’과 ‘홀로 있음’에 대한 다른 시각을 제시하여 환기하고 싶었던 것이 본 소고의 목적이었다.

갈수록 시끄러워지는 세상 속에서 제대로 홀로 있는 법을 배우고, 침묵과 고요함의 의미와 가치를 탐색하고자 했다. ‘홀로 있음’과 ‘침묵’이 주는 힘을 느껴봄으로써, 소음과 잡음으로 가득 차 있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스마트폰, SNS 등의 외부에만 의존하지 않고, 침묵까지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심중에 새겨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홀로 있음’과 ‘침묵’ 속에 영혼을 맡겨 보는 것을 시도해봄으로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자유와 기쁨의 본질을 조금이라도 누리볼 수 있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이 본 논문에서 주제화 하고 싶었던 부분이다. 앞으로 기독교인 대학생들이 고요한 내면 속 침묵의 시간을, 홀로 하나님 앞에서 가져 봄으로써, 그 속에서 자신을 잘 돌아보고, 자신의 삶의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찾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참고문헌

- 김경실 (2003). “침묵 읽기, 침묵 말하기, 침묵하기.” 『기독교사상』 . 02(530). 92-97.
- 김인택 (2011). “의사소통 과정에서 ‘침묵’행위의 사회·문화론적 해석.” 『코기토』 .2(10) 451-483.
- 김재현 (2011). “침묵과 말 -생기사건을 중심으로 하이데거 언어 사유 이해하기.” 『인문과학연구』 . 09(37). 67-80.
- 박만엽 (2015). “침묵과 언어놀이의 수사학-비트겐슈타인의 『논고』 와 『탐구』 를 중심으로 -.” 『수사학』 . 3(22). 69-98.
- 박영구 (1986). 『침묵의 세계』 . 서울: 정음문화사.
- 서동은 (2012). “철학상단에 있어 침묵의 역할에 대하여.” 『존재론 연구』 . 4(28). 137-166.
- 디트리히 본회퍼 (2013). “참된 침묵.” 『기독교사상』 . 03(651). 105-105.
- 스티븐 L. 빈데만 (2011). 『하이데거와 비트겐슈타인, 침묵의 시학』 . 부산: 부산대학교 출판부.
- 원영미 (2009). “W. S. 머윈의 생태시에 나타난 ‘침묵’의 의미.” 『문학과환경』 . 06(8). 99-120.
- 이여옥 (1990). “침묵에 관한 연구.” 『한국 프랑스학 논집』 . 2(15). 49-62.
- 이승우 (2000). “말과 침묵에 대한 철학, 혹은 시 막스 뼈까르의 침묵의 세계.” 『새가정』 . 7(514). 96-99.
- 이후정 (2014). “침묵-기도의 골방과 내면의 평화.” 『기독교사상』 . 11(671). 229-238.
- 장영희 (2012). “비언어 의사소통으로서의 침묵의 기능과 의미 분석을 통한 유형 분류.” 『어문론집』 . 6(50). 151-174.
- 전기철 (2014). “사이와 침묵 -조오현의 ‘적멸의 언어’에 대하여.” 『시조시학』 . 6(51). 216-229.
- 정혜경 (1999). 『언어행동과 비언어행동』 . 서울: 박이정.
- 조보라미(2006). “최인훈 희곡의 ‘침묵’의 미학 -봄이 오면 산에 들예를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 4(23). 121-156.
- 조지 프로호니크(2010). 『침묵의 추구』 . 안기수 역. 서울: 고즈윈.
- 안네마리 키더(2007). 『홀로 있음』 . 김주성 역. 서울: 경림출판사.
- 표준국어대사전(2001). 국립국어원. “침묵의 정의.”